

장백산천지

제 156 호

2009 년 12 월 11 일

금요일

아태지역파룬궁수련생 6 천여명이 《전법륜》 책모형을 부각

지난 11 월 21 일, 아태지역파룬궁수련 심득교류회가 열리기 직전, 대만대중현외포항의 잔디밭에서 아태 지역 각나라에서 온 6 천여명 파룬궁수련생들이 배렬하여 립체로 된 대형의 《전법륜》 책 모형을 부각했다.

대만 파룬따파학회 부리사장 황춘매는 《파룬따파는 오 늘까지 전세계 114 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 으며 억만 사람들의 심신건강에 리로웠다. 파룬따 파수련의 주요저작 <전법륜>책은 파룬궁수련생



들로 하여금 “쩐싼런”에 따라 심성을 높 히게 했으며 이미 30 종의 다른언어로 번 역되었다.》 라고 말 했다. 식자설계를 책 임진 오청상은 《나 는 1995 년부터 파룬 궁을 수련해왔다.<전 법륜>책은 깊은 내포 가 있고 매우 많은 사 람들은 이 책에서 의 문들을 해결했으며인

생의 방향을 찾았다. 가장 진귀한 이 책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라고 의미심 장하게 말했다.

7 천여명 파룬궁수련생들이 대만에서 아세아주법회를 열었다

2009 년 아세아 주파룬따파수련심득 교류회가 지난 11 월 22 일에 대중중흥대학 혜손당에서 성대히 거 행되었다.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등 아태 국가와 대만의 부분적 파룬궁수련생 7 천여 명이 참가했다. 20 명 파룬궁학원들이 강단 에서 수련심득을 이야 기했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쩐싼런”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세인들에 게 진상을 이야기했는가에 대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다. 중흥대학교 훈교주임 장녀사는 《도 덕이 아래로 미끄러 떨어지는 현실사회에서 인터 넷환상세계가 성행되고 학생들이 싸움질하고 공 공물을 마스고 쌍스런 소리를 하고 웃차림이 단 정치 않고 괴상한 머리를 하고 다니는 3 천여명



학생들을 파룬궁의 “쩐싼런”원칙에 따라 교육한데서 교풍이 개변되었다. 금년 졸 업식이 끝날무렵에 전교학생들은 《파룬 궁이 좋다! 》 라고 외 쳤다.

법회에 참석한 수련생들은 동수들의 발언에 몹시 감동되 여 저마다 수련을 비 기면서 자신의 부족 점을 찾았고 범중에

서 정진할 것을 다졌다.

한국에서 온 통신회사 상무리사인 정기태는 오전의 교류를 듣고나서 《홍콩과 인도네시아에 가서 법을 전할때 두려운 마음과 집착심을 버린 체험은 나를 몹시 감동시켰다. 여러분들의 수련 환경이 다르고 나라와 지역이 다르지만 집착심을 버리는것만은 너남없이 같다.》 라고 말했다.

중국인체과학의 영역을 개척한 전학삼



전학삼 일가
(1955년에 찍음)

전학삼(钱学森)은 중국과학자중의 권위 급 인물이다. 그의 서거는 온 나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자아내었다.

일찍 1982년에 전학삼은 중공 선전부 부장 위문(郁文)에게 편지를 써서 《인체 특이기능은 진짜이고 거짓이 아님을 보증한다.》고 자기 태도를 표명했다. 전학삼은 당시 국방과

공위(工委)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인 장진환(张震寰)과 연합하여 대담하게 무신론의 틀을 돌파하여 중국 과학계에서 한차례 전면적으로 새로운 중국인체과학의 영역을 개척했다.

전학삼은 이렇게 말했다. 《인체과학이란 첨단 중의 첨단과학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그것은 첨단의 첨단의 과학의 평방이다.》, 《기공은 인체과학대문을 여는 열쇠이다.》

전학삼은 홍콩기자가 채방할때 《인체특이기능은 진짜이며 가짜가 아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과학혁명으로 변화될때면 그 자체가 현대과학체계를 타파하고 최후에 과학혁명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그의 대폭적인 추천하에 중공총서기 호요방(胡耀邦)은 중앙선전부에 지시하여 기공과 인체과학연구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쟁론하지 않고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다.》는 “3 부정책(三不政策)”을 제정하였다.

여러분이 아다싶이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도 전반 기공계에 뻗어나갔으며 인체과학연구도 포괄하였다. 이것은 중공이 인류문명에 대한 또 한 차례 말살이며 중국사람들이 광명한 앞날을 추구하는데 대한 폭력적인 간섭이었다.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속에서 전학삼은 자신의 절개를 지켰다. 파룬궁에 대한 십여년의 박해속에서, 여러차례 그의 집을 방문한 강택민은 빙빙 에둘러대면서 그한테서 파룬궁과 기공을 공격하는 언급을 얻으려 하였지만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환경에서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부주의로 한 한마디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그 어떤 있지 말아야 할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량지있는 한 과학자가 중공의 위협앞에서 견지할수 있는 최저의 도덕밀선일 것이다.



박해를 받아 피골이 상접한 량지근



연변박해소식



박해전의 량지근



박해후의 량지근

당산시 파룬궁학원 량지근(梁智芹)은 1999년 9월 21일에 부견으로 상방하러 갔다가 랍치되어 개평로개소에 갇혀 2년동안 박해를 받았다. 악경들은 그를 안강병

원에 보내어 침대에 묶어놓고 독주사를 놓았고 찍하면 전기충격, 구타, 벌세우기, 나무에 매달고 열구기 등 혹형을 감행했다. 워낙 체중이 130여근이었던것이 여위여서 지금 60근밖에 안된다.

■ 지난 12월 2일, 연길시 파룬궁학원 황미화(黄美花)와 오순자(吴顺子)는 화룡시제 3 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 훈춘시 파룬궁학원 류혜영(刘慧英)은 훈춘시 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다가 지난 10월 18일에 1년 도형을 받고 장춘시 흑취자로교소로 호송되었다. 악경들은 여러가지 구실로 가족면회를 거절하고 있다.

■ 지난 12월 9일 저녁, 도문시파룬궁학원 류아선(刘亚仙), 곡옥분(曲玉芬) 등 4명이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